

# 0112과제 a.minkuk.seo 서민국

## 국내 공인인증서 도입 배경과 위험성

### 공인인증서, 정부가 금융권에게 만들어준 면죄부

플러그인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공인인증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공인인증서란 쉽게 말해 전자 인감도장이다. 우리나라에는 '이 도장이 내 도장이다'고 관공서를 통해 정식으로 인증받는 '인감(印鑑)'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공인인증서는 이 인감을 웹으로 옮겨둔 제도다. 사용자가 인터넷 상에서 한 거래를 '이 거래는 내가 승인한 거래다'고 인증해주는 기술이다.

공인인증서 역시 초창기 열악한 인터넷 환경에서 어떻게든 인터넷뱅킹과 전자상거래를 구현하기 위해 고안해낸 기술이다. 플러그인과 비슷하다.

초기 웹 브라우저는 암호화 능력이 부족해 해커가 중간에서 데이터를 가로채기 쉬웠다. 암호화 전송기술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넷스케이프 그룹이 95년 고안해낸 SSL(Secure Sockets Layer, https)라는 기술이 암호화 전송기술 표준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방침 탓에 인터넷뱅킹을 구현하기엔 암호화 수준이 모자랐다. 때문에 독자적인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공인인증서를 개발해냈다. 그리고 플러그인을 사용해 공인인증서를 웹 브라우저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의 밀월관계는 이렇게 시작됐다.

우의 수를 정부가 하나하나 규제하는 것부터가 바로 이 많은 문제점들의 시작적임을  
고집어 주는 기사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기형적 환경은 정부가 공인인증서를 유일무이한 인증기술로 채택하고 이를 위해 MS의 브라우저와 액티브X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면서 타 보안 기술의 진입을 막은 탓입니다. 그같은 판단은 2000년대 초반 인터넷확산기에는 유효했겠지만 멀티 OS, 멀티플랫폼, 멀티디바이스를 논하는 현재는 오히려 소비자 불편을 키우고 기술발전의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결국 정부주도로 공인인증서를 다른 브라우저에서 쓰도록 한다는 발상이나 외국인 전용 쇼핑몰을 만들어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것도 또다른 기형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일 뿐입니다.

결국 정부의 태도와 인식의 변화에 본질적 해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를 안써도 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양한 보안기술을 금융사나 전자상거래 업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와 문화, 그리고 다양한 보안 기술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를 이끌어내야하는 것입니다.

[머니투데이, 3월 29일]공인인증서 도대체 왜, 못 없애는 걸까요?

- 공인인증서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인 보안과 관련한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각종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 공인인증서 자체는 하나의 파일에 불과하며, 얼마든지 복사 및 붙여넣기가 가능하다.
- 공인인증서 사용은 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과 기업의 피해 보상 의무를 면책시켜주는 것이지(공인인증서 사용은 고객의 거래 부인 방지를 위한 용도로도 이용됨. 즉, 내가 이 거래를 승인한 당사자가 맞고 이 거래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내가 집니다, 라고 확인 해주는 것),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다.
-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해서는 액티브X가 필수적인데 이는 악성코드 확산의 주범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 관련 정부 부처 및 보안 회사들의 이익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앱접근성이란 모바일기기를 중심으로 한 지식정보가 급증하는 반면 정보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소외 및 격차를 완화하고자 만들어진 개념으로 동등한 정보 접근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선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필수사항 혹은 권고사항들로 이루어진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발표했다

##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현황

### 정보접근성은“기업의 비용이 아닌 사회적 책임”

- 미래부, 『2015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웹사이트 83.2점(전년대비 3.8↑), 모바일 앱 78.1점(전년대비 1.4↑)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정보접근성\* 수준을 조사한 『2015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 결과를 발표하였다.
- \* 정보접근성 :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기술적 조건에 관계없이 웹(Web) 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 등 각종 ICT 기기를 활용하는 개념
- \*\* 대중성이 높은 웹사이트(100개) 및 모바일 앱(50)을 포함한 총 800개 민간기업 대상
-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12년 이후 3년간 **웹 사이트는 6.5점**('12년 76.7점→'15년 83.2점), **모바일 앱은 13.6점이 향상**( '12년 64.5점→'15년 78.1점)되어 **정보접근성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14년도와 비교하면 **웹 사이트는 83.2점으로 전년(79.4점) 대비 3.8점 향상**되었으며, **모바일 앱은 78.1점으로 전년(76.7점) 대비 1.4점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대상분야별로** 보면, 민간법인('14년 80.2점→'15년 82.5점), 의료기관('14년 83.9점→'15년 85.2점), 복지시설('14년 68.7점→'15년 83.1점), 방송언론('14년 67.9점→'15년 77.2점) 등으로 **웹사이트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분야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수준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14년 76.7점→'15년 78.1점)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인지도 대중성이 높은 웹 사이트(100위) 및 모바일 앱(50위)**을 분석·평가·등급 기준)한 결과, **각각 78.9점, 77.9점으로** 전체 조사대상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나 대중성이 높은 웹과 앱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웹과 앱에서 공통으로 접근성을 준수하지 못한 항목으로는 '대체텍스트'**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지원, 교육,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 **대체텍스트** : 장애인들이 인터넷이나 앱 상의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안 서비스를 제공
- 미래부는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민간기업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 **2차에 걸친 조사와 정보접근성 개선 컨설팅**을 병행 하였다. 1차 조사(7월)를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상당한 개선 효과를 거두었다. 컨설팅 결과 2차조사(12월)에서 웹사이트는 평균 3.0점, 앱은 11.7점의 개선효과를 거두었다.
- '16년에도 미래부는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정보접근성 설명회", "표준 마련", "정보접근성 향상 제작기법 제작 보급" 등 민간기업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미래창조과학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보접근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업이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정보접근성은 기업의 비용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보통신 기술이 우리 사회가 함께하는 수단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관심과 개선을 당부하였다.